

이러한 강남구의 독창적인 연구 모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실무와 이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의성과 논리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며, 세무 행정의 ‘브레인’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입증했습니다.



## # 제2막: 진심이 닿은 현장 솔루션

보령에서의 승전보가 들려온 지 다음날인 11월 19일,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선 포럼이 ‘이론’의 장이었다면, 이곳은 납세자를 위해 발로 뚫은 ‘현장’의 기록을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강남구 정혜린 주무관은 〈예산은 없어도 방법은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상담 수요는 폭증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연결’을 택했습니다.” 발표 화면에는 강남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중소기업 세무설명회’의 현장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등 민간 기관의 자원을 끌어들이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1,024명의 구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 ‘비예산 민관 협력 모델’은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서 전국 최초의 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지방세정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 답안으로 꼽혔습니다. “강남구의 사례는 예산 부족을 겪는 모든 지자체가 따라야 할 표준입니다.” 심사위원장의